

教育用 成人 男性의 Dress Form 開發을 위한 基礎研究 - 男性服業體의 Dress Form 使用現況 및 男性服 教育實態 分析을 通해 -

劉 嫻* · 沈富子

東亞大學校 大學院 衣裳纖維學科 博士課程*, 東亞大學校 衣裳纖維學部 教授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Dress Forms for Male Adults - Survey of Male Dress Forms for Men's Apparel Company and the Education for Men's Wear in Fashion Dept. of University -

Yoo, Hyun* · Shim, Boo-Ja

Dr. Course, Division of Fashion & Textiles, Dong-A University*, Prof., Division of Fashion & Textiles,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educational dress forms of male adults' pattern making. While examining the reality of each university's men's wear education and the production of male dress forms, this paper found the following findings:

1. Survey of Dress Forms Used by Men's Apparel Companies

The men's apparel companies had dissatisfaction with domestic dress forms but satisfaction with foreign-made ones. In general, among the unsatisfied items were wide discrepancy in male Korean body sizes, unfitting domestic somatotypes, lacking dress forms for those in the 20s, and no diverse forms per body type. To be specific, unsuitable hip and shoulder parts as well as weak fixing parts were pointed out.

Every apparel companies found it necessary to develop male dress forms based on Korean male adults. When they are developed for sale, they will be highly utilized in the order of fitting, pattern making, male design research, and somatotype research.

2. Survey of Education for Men's Wear in Fashion Dept. of University

61.54% of the investigated universities had some teaching as far as men's wear were concerned.

Application areas of male dress forms were such as pattern making (53.85%), fitting (41.38%), and design research (5.77%). As to the degrees of utilization, 73.08% predicted them high.

Key words: dress form(인대), pattern making(패턴제작), men's apparel company(남성복 업체), education for men's wear(남성복교육)

I. 서론

최근 남성들이 자신들의 외모 및 의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남성복의 시장은 기성복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의해 오프타임 착장 차림에 어울리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남성복에서 요구됨에 따라 남성복 정장브랜드에서도 과거 어깨에 무게중심이 실린 슈

트에서 가슴과 허리라인을 강조한 ‘스타일업’ 수트를 전략적으로 선보이는 등 남성복의 패션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들의 신사복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박진영, 2000)에서도 20대와 30대는 의복선택에 있어서 신분 상징성 및 심미성을 중시하고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상품기획시 차별화된 소비자의 성향이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복에서도 패션지향적인 소비자들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개발 및 남성의 체형특성을 고려한 패턴개발 그리고 기성복의 치수와 체형에 적합한 인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복의 경우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성복업체의 실정에도 부합할 수 있는 패턴제작방법들이 다양한 교재를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남성복의 경우는 교육자료 및 패턴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이다. 특히 남성복은 경험 많은 숙련공에 의해 폐쇄적인 방법으로 기술전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업계와 학계의 정보교환 및 자료부족으로 인해 남성복을 위한 표준화된 패턴제작방법조차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복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체형연구로는 유신정(1991), 홍은희(1996), 김인숙(2001), 김구자(1995,1996,2001), 석혜정(2001,2002), 곽연신(2003), 상의 원형에 관한 연구로는 김진선(1992), 박은주(1993), 권순정(1994), 남정은(1999), 황은경(2000), 유경진(2001), 소매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석혜정(1996), 바지원형에 관한 연구로는 석은영(1995), 백경자(2001), 김선혜(2003), 기성복 사이즈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로는 김유미(1996), 김구자(1997), 강여선(2004)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남성복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 남성의 체형특성을 연구한 岡田 宣子(1993), 長田美智子(1997), 川上梅(1998), 상반신체형특성과 의복패턴의 관계를 연구한 百田裕子(1998), 상반신 원형 설계 방법을 연구한 三吉滿智子(2002,2003)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남성소비자들의 의식변화 및 패션에 대한 요구도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남성복을 위한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에 비해 남성복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특히 패턴 메이킹을 위한 교육용 남성인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남성의 패턴메이킹을 위한 교육용 인대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남성복업체의 인대사용현황 및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성복 관련 교육현황을 살펴보고자하며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남성복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대의 사용현황을 통해 인대의 활용분야 및 인대 개발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성복 교육현황을 통해 남성복 관련 교육 및 남성복 관련 교재개발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셋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인남성의 인대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교육 및 업체 의 실정에 부합되는 인대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발췌하여 성인 남성용 인대개발을 위한 연구설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대의 변천과정 및 특성

인대란 다른 명칭으로 바디 스탠드(body stand), 더미(dummy), 드레스폼(dress form), 마네킹(mannequin)으로 불리우며, 체형을 기준으로 제작하되 의복의 종류(란체리용에서부터 코트용까지)등에 따라서 기본이 되는 원형(틀)을 달리한다. 또한 용도에 따라 패턴제작용(입체재단용), 샘플가봉용, 검품용, 디스플레이용, 교습용으로 구분된다(송화경, 2003).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의류업체에서 생산된 기성복을 착장시켜 백화점이나 전문점에 전시하는 디스플레이용 인대와 둘째는 기성복 제작시 이용하는 패턴 메이킹을 위한 기성복 제작용 인대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디스플레이용 인대 및 기성복 제작용인대의 변천과정 및 특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藤井秀雪; 1998, 三宅五穂; 2001).

1) 디스플레이용 인대

현재 백화점과 의류전문점의 매장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인대의 시초는 고대 이집트의 신 왕국시대 왕의 묘에서 부장품으로 함께 매장된 인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6세기 베니스의 카니발에서 프랑스 모드를 입힌 아름다운 인형이 일반대중들에게 소개되면서 의상을 선전하는 목적으로서 이용되게 되었다. 「의장(衣裝)인형」의 시대를 거쳐, 최초로 의복을 걸친 인대가 등장한 것은 1849년 알렉시 라비뉴(Alexis Lavigne)에 의해서인데 그는 상반신의 인대 즉 바디를 개발하여 무역산업박람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세계최초의 인대회사를 파리에 설립했다.

20세기 초반의 인대는 상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디스플레이 연출용으로 점차 발전했다. 그 결과 관절부위의 움직임이 가능하고 생생한 표정이 담긴 인대가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벨기에 출신의 아티스트 스톡크만(Stockman)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그리고 1911년에 개최된 이탈리아 트리노(Torino)박람회에서는 네덜란드출신의 아티스트 이만(Iman)이 의복의 탈의(脫衣)가 가능한 팔관절이 있는 인대를 발표하여 대상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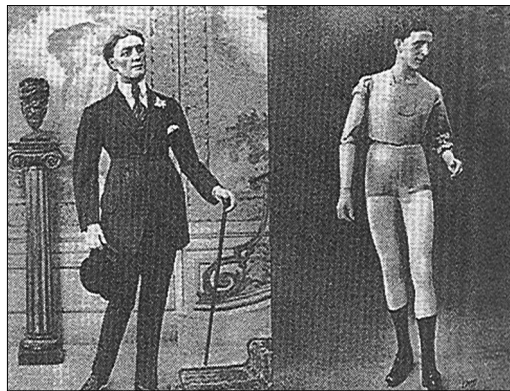
1차 세계대전 이후 개방적인 분위기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반영된 파리젠드의 생생한 얼굴, 다양한 포즈가 담긴 인대가 제작되었다. 또한 1925년경에는 인체 형상을 양식화한 아르데코 스타일이 제작되기도 하여, 현재의 구상 및 추상적인 디스플레이용 인대의 기본 스타일은 1920-30년대의 파리에서 확립된 것이다.

1930-40년에 걸쳐서 표현된 인대는 다양한 사람의 표정을 실존하는 인간, 주로 사교계의 신사, 숙녀(영화스타, 정치가)를 모델로 하여 인간에 근접한 리얼리티를 표현해 유럽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물자부족으로 인해 Carton제 인대에 필요한 종이공급이 곤란하여 전신 석고제의 인대가 등장하는 등 경영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전쟁이 끝난 뒤 의상 견본품을 전시하는 디스플레이용 인대가 백화점 의류매장의 필수품이 되어 황금시대의 개막을 열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소재(FRP: Fiber Reinforced Plastics)를 개발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이지오더의 확대와 함께 디스플레이용 인대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60년대 후반의 패션의 트렌드는 「Mini Look」으로 영국의 인대회사 아델(Adele)은 미니스커트의 여왕 튀기(Twiggy)를 모델로 한 인대를 제작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림 1> 20세기 초반의 밀납(蜜蠟)제 인대 (三宅五穂, 2001)



<그림 2> 영국 아델 회사의 튀기(Twiggy) 인대 (三宅五穂, 2001)

1970년대는 패션도 개성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디스플레이용 인대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VMD(Visual Merchandising)의 출현과 함께 패션의 주제 및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용 인대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디자이너 캐릭터 브랜드(Designer Character Brand)가 전성했던 시대로서 즉 고가의 해외 브랜드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및 국외의 패션경향의 시차를 최소화시켜주었다. 따라서 수입 및 수출을 위한 글로벌화된 인대의 표현방법이 요구되었고, 매장의 VMD(Visual Merchandising)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다양한 캐릭터의 디스플레이용 인대 수요가 증대하였다. 또한 미술관과 박물관등에도 설치되어 역사관, 의상전시의 전람회에 있어서 인대의 활용분야가 넓어졌다.

1990년대 및 2000년대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흑인 및 갈색인종을 모델로 한 디스플레이용 인대가 등장하였고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재활용제품과 자연으로 환원되는 재료를 이용한 인대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디스플레이용 인대의 경우는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마인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기술과 감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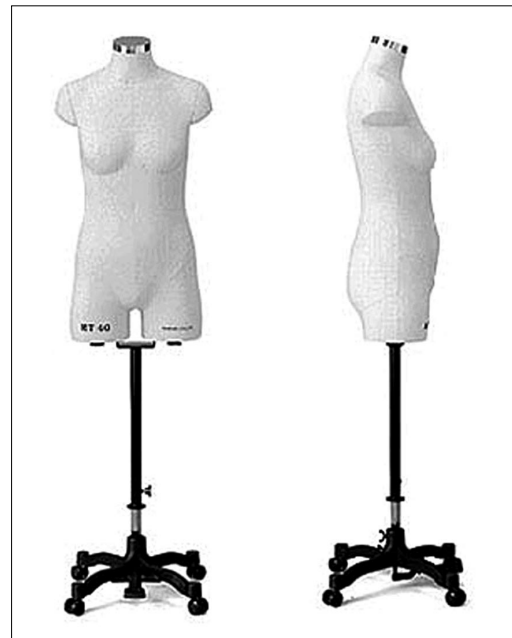
2) 기성복 제작용 인대

최초의 패턴 메이킹용 인대는 1849년 알렉시 라비뉴(Alexis Lavigne)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파리의 여성용 승마복을 제작해주는 재단사로서 인체의 사이즈, 형태,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승마복을 재단하기 위해서는 상반신용 바디를 필요로 하였다. 당시는 콜셋을 몸에 착용하는 시대로서 이때의 상반신용 바디도 콜셋을 착용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특히 치마폭이 넓고 긴 스커트를 제작했기 때문에 다리부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현재의 재단용 또는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받침대가 부착된 인대의 형태는 이 시대에 정착된 스타일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기성복 제작용 인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기성복을 대량으로 생산하

여 공급하는 산업시스템에 의해 소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체계측이 실시되었고 인체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복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업용 입체재단 인대가 개발되었다. 현재 다양한 디자인의 기성복을 만드는 기성복제작용 인대는 객관성을 필요로 하므로 인대제작 시 과학적인 3차원 형상계측장치 등에 의해 산출된 자료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간생활 공학 연구 센터(HQL)는 1992년부터 3년에 걸쳐 34,000명을 대상으로 178항목의 인체계측을 실시한 후 인체계측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본인의 평균적인 인체상을 구현하였다(그림 3). 전신 127항목의 M사이즈 데이터와 해부학적 지식, 인간의 손에 의한 인체형상화 기술, 미적감성 4개의 요소로 성립된 인체더미는 평균이라고 하는 막연한 수치적 개념을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형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일본인의 체형형상과 치수가 정확하게 파악됨으로써 내추럴한 누드바디(그림 3), 수영복, 팬츠 스타킹, 양말등의 용도별 재단, 검품용 바디(그림 4, 5)가 완성되어 업체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3> 40대 여성 재단용 누드바디
(www.nanasai.co.jp)



<그림 4> 20대 여성 수영복 재단용 누드바디
(www.nanasai.co.jp)



<그림 5> 검품용 바디(www.nanasai.co.jp)

(좌: 20대여성 팬티스타킹, 중: 20대여성 양말, 우: 20대 남성 양말)

우리나라의 Size Korea에서도 2003년 4월부터 2004년 11월에 걸쳐, 0세에서 90세까지 남녀 19,2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 및 형상을 측정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3차원 형상측정에 의해 한국인의 표준체형 모형의 제시가 가능하게 되어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 인대 생산 분야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이상과 같은 기성복 제작용 인대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의류생산 업체의 경우 인대는 패턴을 만들기 위한 재단용과 옷이 완성된 후 검품을 위한 검품용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대의 품질이 바로 생산된 의류제품의 품질과 관계되므로 인대는 가능한 한 인체의 형태 및 치수에 가까운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둘째, 기성복 제작용 인대는 인체에 의복이 요구하는 체형과 사이즈에 적합한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갖추어야 한다. 의상이란 착용하는 사람의 치수에 맞으면서도 착용시 아름다운 실루엣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토대가 되는 인대는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인대의 종류는 제작시 고려된 여유량정도에 따라 누드인대와 공업용인대로 나뉜다. 누드인대는 인체치수와 같도록 만든 인대로 입체재단시 의복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여유량을 넣어가며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업용 인대는 인체치수에 의복제작에 필요한 최소한 여유분이 들어간 인대를 말한다(어숙경, 1991). 그러나 다양한 의복의 종류에 맞추어서 많은 인대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모든 종류의 의복에 대응할 수 있는 누드인대가 활용도가 높다.

넷째, 인대의 소재는 옷감을 걸쳐서 미끄러지기 쉽거나 딱딱해서 핀이 꽃히기 어려운 소재는 피하고 인체의 피부와 같이 탄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으며, 타이트 피팅으로 고정된 옷감의 솔기가 좌우대칭 및 바른 선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인대의 색상은 피부색을 대표함과 동시에 입체재단 시 사용하는 옷감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오염이 쉽게 타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국내 남성인대의 생산 및 사용현황

1) 국내 기성복 제작용 남성인대의 생산 현황

국내에서 생산되는 남성인대는 디스플레이용과 기성복제작용으로 구분되어 생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기성복 제작용 남성인대를 생산하는 업체는 D사 한 업체밖에 없는 실정이다. D사는 1952년경 일본인이 사용하던 인대의 모형을 나무로 깎아 형태를 고친 후 주물로 틀을 만들어 주문제작하기 시작했다. 제작을 거듭하면서 치수의 근사치를 가지고 경험에 의해 인대의 형태를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제작해오고 있는 실정이다(어숙경,1991). 아직까지 국내의 인대제조업체는 사업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인대제작에 필요한 치수나 형태의 참고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외국산 인대를 복제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대는 호수의 증감에 따라 치수차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의복제작에 필요한 여유량이 인대에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제조업체의 영세성 및 인대의 치수 부적합성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복 업체에서는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2) 기성복 제작용 남성인대 사용현황

현재 국내 남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성인대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국산 돼지표, 일본산 블레타스(Bletas), 미국산 울프(Wolf), 프랑스산 스톡크만(Stockman) 등이 있다.

(1) 한국산 돼지표

현재 제작하고 있는 남성인대의 종류는 36, 37, 38, 39, 40, 42, 44, 46, 48호가 있는데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다. 남성인대의 경우 토르소형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문에 의해 인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호칭별 치수는 <표 1>과 같다.

(2) 일본산 블레타스(Bletas)

블레타스(Bletas) 시리즈는 1975년에 발표되었으며, 1981년에 New Bletas로 개선되어 출시되고 있다. 패턴 제작 및 검품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림 6>과 같이 실루엣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패턴에 적합하

<표 1> 국내용 남성인대의 호칭별 치수

(단위 : cm)

호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폭	등길이
38	96.5	81.0	97.0	45.0	39.0
40	101.6	84.0	103.0	46.5	43.0
42	106.7	87.0	105.0	47.5	43.5

* 음영은 현재 가장 판매량이 높은 인대호수를 나타냄.



<그림 6> 남성복 입체재단 (kiya.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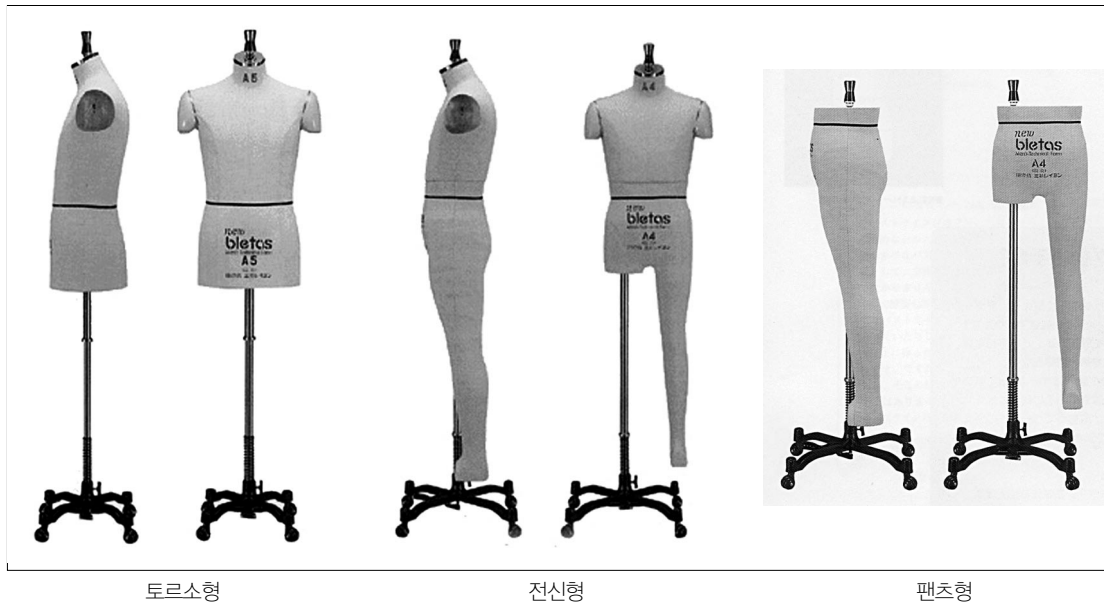
도록 하고 있다. 현재 New Bletas의 제품으로는 토르소(Torso)형, 코트(Coat)형, 전신형(Full-Length)형, 팬츠(Pants)형 등이 있으며 <그림 7>, <표 2>와 같다.

(3) 미국산 울프(Wolf)

울프사는 1900년 초부터 인대를 생산해온 업체로서 젊은 남자 및 성인남자대상의 사이즈와 엑스트라 라지(extra large)사이즈까지 제작되고 있다. 울프사의 인대는 토르소(Torso)형, 전신형(Full-Length)형 등이 있으며 <그림 8>과 같다. 인대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체의 실루엣을 표현하는 인대형태를 울프사의 전문적인 숙련공들에 의해 만들어짐으로서 세계각국의 디자이너, 의류업체, 패션스쿨에서 사용하고 있다.

(4) 프랑스산 스톡크만(Stockman)

스톡크만사는 1867년부터 인대를 생산해온 업체로서 재킷용 및 셔츠용의 남성용 인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의복종류에 따른 호칭별 치수는 <표 3>과 같다.



토르소형

전신형

팬츠형

<그림 7> 일본산 New Bletas의 제품(kiyya.co.jp)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남성복 업체의 인대사용현황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 남성복 정장브랜드(13업체)의 제품개발실 패턴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 4>와 같고, 조사를 실시한 업체는 <표 5>와 같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남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대현황(7문항), 남성인대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 (3문항), 남성복 현장실무에 요구되는 대학 교육 내용(2문항),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8> 미국산 울프제품(<http://www.wolfform.com>)

<표 2> 일본산 블레타스(Bletas)의 호칭별 치수

(단위 : cm)

호칭	호수	JIS 대응치수	가슴둘레(+6)	허리둘레(0)	엉덩이둘레(+3)	어깨폭	등길이
Torso 형 -Y-	Y4	165-170-88	94.0	72.0	91.0	42.0	46.0
	Y5	170-175-90	96.0	74.0	93.0	43.0	46.5
	Y6	175-180-92	98.0	76.0	95.0	43.5	47.0
Torso 형 -YA-	YA5	170-175-92	98.0	78.0	95.0	43.5	47.0
Torso 형 -A-	A4	165-170-92	98.0	80.0	96.0	43.5	46.0
	A5	170-175-94	100.0	82.0	98.0	44.0	46.5
	A6	175-180-96	102.0	84.0	100.0	45.0	47.0
Torso 형 -AB-	AB5	170-175-96	102.0	86.0	100.0	45.0	47.0
Torso 형 -B-	B4	165-170-96	102.0	88.0	101.0	45.0	47.0
	B5	170-175-98	104.0	90.0	104.0	45.0	47.5
Torso 형 -E-	E	170-175-100	106.0	96.0	106.0	45.0	47.0
Coat 형	-	-	104.0(+10)	92.0(+10)	105.0(+8)	45.0	42.0
Full -Length 형	Y5	-	96.0	74.0	91.0	43.0	45.5
	Y6	-	98.0	76.0	93.0	43.5	46.0
	A4	-	98.0	80.0	94.0	43.5	45.0
	B4	-	102.0(+6)	88.0(0)	99.0(+1)	45.0	46.0
Pants 형	Y5	-	-	74.0	91.0	-	-
	Y6	-	-	76.0	93.0	-	-
	A4	-	-	80.0	94.0	-	-
	B4	-	-	88.0(0)	99.0(+1)	-	-

* 음영은 현재 가장 판매량이 높은 인대호수를 나타냄.

** ()는 인대에 포함된 여유량

<표 3> 프랑스산 스톡크만(Stockman)의 호칭별 치수

(단위 : inch)

구 분	호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구 분	호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자켓용	32	33	29 1/4	35 1/2	셔츠형	32	33 1/4	29 1/4	35 1/2
	34	34 3/4	30 3/4	37		34	34 3/4	30 3/4	37
	36	36 1/4	32 1/2	38 3/4		36	36 1/4	32 1/2	38 3/4
	38	38	34	40 1/4		38	38	34	40 1/4
	40	39 1/2	35 1/2	42		40	39 1/2	35 1/2	42
	42	41	37 1/4	43 1/2		42	41	37 1/4	43 1/2
	44	42 3/4	38 3/4	45		44	42 3/4	38 3/4	45
	46	44 1/4	40 1/4	46 3/4		46	44 1/4	40 1/4	46 3/4
	48	45 3/4	42	48 1/4		48	45 3/4	42	48 1/4

* 음영은 현재 가장 판매량이 높은 인대호수를 나타냄.

<표 4>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구분	항목	빈도수(명)
성별	남	6
	여	7
연령	20대	1
	30대	4
	40대	6
	50대	2
경력	10년 이하	3
	10년~15년 이하	1
	15년~20년 이하	3
	20년 이상	6
합계		13

<표 6>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

구분	항목	빈도수(명)
성별	남	1
	여	51
연령	30대	7
	40대	28
	50대	17
직위	교수	20
	부교수	14
	조교수	13
	전임교수	3
	겸임교수	2
합계		52

<표 5> 남성복 정장브랜드 (가나다순)

No	회사명	브랜드명	No	회사명	브랜드명
1	두산	폴로	8	원풍물산	니나리찌
2	미도	파코라반	9	제일모직	갤럭시
3	부흥	스말토	10	제일모직	로가디스
4	빌트모아	빌트모아	11	코오롱	아르페지오
5	세정	인디안	12	캠브리지	캠브리지
6	에스지위카스	바쏘			멤버스
7	엘지패션	마에스트로	13	파크랜드	파크랜드

2 남성복 교육현황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의류학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4년제 대학(73개교)에서 의복구성학을 강의하고 있는 현직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 6>과 같다. 설문조사결과 회수된 설문지 52부(회수율 71.2%)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조사시기는 2004년 10월7일부터 11월15일 까지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남성복 구성을 위한 교과과정개설 여부 및 필요성 (5문항), 남성복교육용 교재 및 교육자료 실태(2문항), 남성인대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 (2문항), 남성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남성복 교과과

정이수에 따른 취업기여도 (2문항),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4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Win(ver 10.0)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빈도수에 대한 백분율 및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남성복 업체의 인대사용현황

1) 남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대현황

남성복업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대현황을 <표 7>에서 살펴보면 3개의 업체에서 국내산 및 국외산 인대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5개의 업체는 국외산 인대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3개의 업체는 국내산 인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대의 종류는 토루소형, 코트, 전신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팬츠형 인대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대의 치수 및 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국내산 인대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대부분이 '불만이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국외산 인

〈표 7〉 남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대현황 (N=13)

구 분	항 목	조사 업체수
인대의 제품정보	인대 미보유	2
	국내산	3
	국외산	5
	국내, 국외산	3
합 계		13
인대의 용도*	가봉용	5
	검품용	4
	디자인개발용	4
합 계		13
인대의 종류*	토루소형	21
	코트형	4
	전신형	4
합 계		29
인대의 치수 및 형태 만족도 (인대보유업체 대상)	대단히 만족한다	1
	만족한다	2
	보통이다	4
	불만이다	3
	대단히 불만이다.	1
합 계		11

* 다중응답 항목

대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하고 있어 국내생산용 인대에 대해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인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한국 성인남성의 인체치수와 인대의 치수가 차이가 크다', '국내체형에 맞지 않는다', '20대의 체형에 맞는 인대가 필요하다', '체형별로 인대가 다양하지 못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부분적인 인대의 문제점으로는 인대고정을 위한 스탠드부위의 불만족, 힙부위의 부적합성, 어깨부위의 부적합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2) 남성용 인대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

남성용 인대 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에서 보면 모든 업체에서 한국 성인남성을 토대로 한 인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2개의 업체에서 남성용 인대의 활용도가

〈표 8〉 남성용 인대 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

구 분	항 목	조사 업체수
남성용 인대 개발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9
	필요하다	4
남성용 인대의 활용도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5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7
	활용도가 낮을 것이다	1
남성용 인대의 기여분야*	패턴메이킹용	6
	의복제작 후 피팅용	13
	남성복 디자인 연구용	3
	남성체형연구용	2
합 계		13

* 다중응답 항목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성인남성의 체형을 토대로 한 인대가 개발되어 시판된다면 어떤 분야의 남성복연구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피팅용)패턴메이킹용)디자인연구용)남성체형연구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3) 남성복 현장실무에 요구되는 대학교육 내용

현장실무에 요구되는 대학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에서 보면 의상을 전공한 학생들의 현장실무 능력에 대해 11개의 업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부족한 실무분야로는 봉제 및

〈표 9〉 남성복 현장실무에 요구되는 대학교육 내용

구 분	항 목	조사업체수
현장에서의 의상전공 학생들의 이론 및 실무에 대한 평가	매우 부족하다	6
	부족하다	5
	보통이다	2
의상전공학생들의 부족한 실무분야*	패턴설계 분야	7
	봉제 및 제작방법 분야	8
	디자인분야	1
	현장에서의 용어 사용 및 시스템활용분야	6
	기 타	1
합 계		13

* 다중응답 항목

제작방법분야)패턴설계분야)현장에서의 용어사용 및 시스템활용분야)디자인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복 업체에서는 패턴설계분야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특별한 기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입교육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켓 등의 정장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점과 처음 남성복을 접할 때 여성복 방식으로 임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모든 업무분야의 현장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실무교육에 대한 보완을 대학교육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17.3%나 차지하고 있어 조사대상 학교의 61.53%가 남성복구성 관련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남성복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도 35.9%는 개설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4년제 대학에서 남성복에 대한 교과과정개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4.23%가 대학교과과정에 남성복구성에 관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대학원의 경우는 73.08%가 필요하며 17.31%는 세부전공에 따라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대학에서의 남성복 교육현황

1) 남성복 구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설여부 및 필요성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성복에 대한 교육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에서 살펴보면 대학의 교과과정에 남성복관련 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학교가 23.08%, 대학원 교과과정에 개설되어있는 학교가 15.38%, 그리고 대학 및 대학원 모두 개설된 경우도 5.77% 를 차지하였다. 또한 교과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대학 및 대학원에서 남성복관련수업을

2) 남성복 교육용 교재 및 교육자료 실태

남성복 교육용 교재 및 교육자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에서 보면 남성복관련 교육용 교재 및 교육자료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교육자료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는 패턴설계(59.62%)교육용 남성 인대개발(15.38%)디자인(13.46%)봉제 및 제작방법(9.6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교재용으로 출판되고 있는 의복구성과 관련된 교재를 조사해본 결과(2004년 10월 15일 기준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 조사) 여성복의 경우는 입체구성관련 서적 15권, 컴퓨터패턴 관련서적 5권, 의복

<표 10> 남성복 구성을 위한 교과과정개설여부 및 필요성

구분	항목	빈도수(명)	백분율(%)
교과목 개설여부	대학 교과과정 개설	12	23.08
	대학원 교과과정 개설	8	15.38
	대학 및 대학원 교과과정 동시개설	3	5.77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대학에서 남성복 수업진행	8	15.38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나 대학원에서 남성복 수업진행	1	1.92
	대학 및 대학원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고 수업도 진행하지 않음	20	38.46
대학 교과과정 필요	필요하다	49	94.23
	필요하지 않다	0	0.00
	기타(부분적으로 필요하다)	3	5.77
대학원 교과과정 필요	필요하다	38	73.08
	필요하지 않다	5	9.61
	기타(세부 전공별로 필요하다)	9	17.31
합 계		52	100

〈표 11〉 남성복 교육용 교재 및 교육자료 실태

구 분	항 목	빈도수(명)	백분율(%)
남성복 교육용 교재 및 교육자료 현황	부족하다	28	53.85
	매우부족하다	24	46.15
교육자료 개발의 우선 순위	패턴메이킹을 위한 교육용 남성인대개발	8	15.38
	봉제 및 제작방법에 대한 교재개발	5	9.62
	패턴설계에 대한 교재개발	31	59.62
	남성복 디자인을 위한 교재개발	7	13.46
	기 타	1	1.92
합 계		52	100.00

구성을 위한 패턴설계서적 46권으로 총 66권인 반면 남성복의 경우는 5권에 불과하여 남성복 구성을 위한 교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남성용 인대 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

남성용 인대 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에서 보면 교육용 남성인대가 개발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패턴메이킹용(53.85%) 의복제작 후 피팅용(40.38%) 남성복의 디자인 연구용(5.7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용 남성인대의 교육자료에 대한 활용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73.08%가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6.92%는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4) 남성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남성복 교과과정 이수에 따른 취업기여도

남성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남성복 교과과정이

수에 따른 취업기여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에 의하면 남성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에 있어서는 36.54%가 학생들이 남성복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40.38%가 보통이다, 21.15%가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복 교과과정 이수에 따른 남성복 관련 취업분야 기여도에 대해서는 65.3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인남성의 패턴 메이킹을 위한 교육용 인대개발을 수행하기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 남성복 업체의 인대사용현황 및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성복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의 남성용 인대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 남성용 인대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도

구 분	항 목	빈도수(명)	백분율(%)
교육용 남성인대의 활용분야	패턴 메이킹용	28	53.85
	의복제작후 피팅용	21	40.38
	남성복의 디자인 연구용	3	5.77
교육용 남성인대의 활용도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7	13.46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31	59.62
	활용도가 낮을 것이다	14	26.92
합 계		52	100.00

<표 13> 남성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남성복 교과과정 이수에 따른 취업기여도

구 분	항 목	빈도수(명)	백분율(%)
남성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관심이 매우 많은편이다	1	1.92
	관심이 많은 편이다	18	34.62
	보통이다	21	40.38
	관심이 적은 편이다	11	21.15
	관심이 매우적은 편이다	1	1.92
남성복 교과과정 이수에 따른 남성복 관련 취업분야 기여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7	13.46
	도움이 될 것이다.	27	51.92
	보통이다.	16	30.76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3.85
합 계		52	100.00

과 같다. 국내의 인대생산을 담당하는 업체가 대단히 영세하여 과학적 생산체계보다는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남성의 체형을 고려한 바디생산은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성인남성용 인대제작의 경우 JIS사이즈를 토대로 하여 각 체형별 토르소형, 전신형, 팬츠형, 코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생산되고 있어 조사한 국내 남성복 브랜드의 대부분이 일본제품을 수입하여 가봉 및 검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국내 남성복 업체의 인대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복 업체의 대부분이 국외산 인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대의 치수 및 형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국외산에 비해 국내산 인대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다.

사용하고 있는 인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한국 성인남성의 인체치수와 인대의 치수가 차이가 크다', '국내체형에 맞지 않는다', '20대의 체형에 맞는 인대가 필요하다', '체형별로 인대가 다양하지 못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부분적인 인대의 문제점으로는 바디고정을 위한 스탠드부위의 불만족, 힙부위의 부적합성, 어깨부위의 부적합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한국 성인남성을 토대로 한 인대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2개 업체에서 남성용 인대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인대가 개발되어 시판된다면

어떤 분야의 남성복연구에 도움이 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피팅용>패턴메이킹용>디자인연구용>남성체형연구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국내 패션관련 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남성복 교과과정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한 52개의 4년제 대학 중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남성복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거나 또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1.5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4.23%가 대학의 교과과정에 남성복구성에 관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복관련 교육자료개발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분야로는 패턴설계(59.62%)> 교육용 남성인대개발(15.38%)> 디자인(13.46%)> 봉제 및 제작방법(9.62%)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교육용 남성인대가 개발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는 패턴메이킹용(53.85%)> 의복제작 후 피팅용(40.38%)> 남성복의 디자인 연구용(5.7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용 남성인대에 대한 활용도에서는 73.08%가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교육계 및 산업계 모두 한국 성인남성을 토대로 한 인대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인대개발의 활용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계는 패턴 메이킹용, 산업계는 피팅용으로 각각 나타났다. 인대는 의복의 맞춤새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때 인대의 형태적합성 과 치수적합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체형을 토대로 한 인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남성복 패턴메이킹을 위한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성복 생산업체에게는 가봉 및 검품용으로 보다 정확한 사이즈정보를 가진 바디를 활용함으로써 남성소비자들의 사이즈적합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남성복 업체에 대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한 개의 업체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어 패턴실의 위치나 실무자 또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각 브랜드별 설문조사의 한계성이 있었으며, 향후 남성복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대 및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한 인대제작에 관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 1) 강여선 (2004). 남성복재킷의 선호여유량과 맞음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곽연신 (2003). 20대 남성의 상반신 측면형태에 따른 치수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순 (2002). 패션디자인을 위한 드레이핑 테크닉. 교학연구사. p.10.
- 4) 김구자, 정명숙 (2001). 신사복의 패턴그레이딩을 위한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5(6), 1069-1078.
- 5) 김구자, 이순원 (1997). 기성복 제작을 위한 성인 남성의 사이즈스펙의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1(7), 1247-1257.
- 6) 김구자 (1995). 남성복의 치수규격을 위한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19(6), 924-932.
- 7) 김구자, 이순원 (1996). 체형의 변이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218-227.
- 8) 김유미(1996). 신사복정장의 치수규격과 맞음새에 대한 소비자 태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김인숙, 석혜정 (2001). 20대 남성체형연구 -정면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5(2), 251-263.
- 10) 김선혜(2003). 20대 남성의 체형별 신체인식과 슬랙스 원형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박은주 (1993). 청년기 남성의 상반신 체형분석 및 원형설계를 위한 피복 인간공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박진영, 손희순 (2000). 성인남성의 신사복 착용실태조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4), 35-45.
- 13) 백경자 (2001). 남성정장 바지원형 및 그레이딩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석은영 (1995). 남성복 바지원형의 자동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석혜정 (1996). 남성 캐주얼자켓의 소매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석혜정, 김인숙 (2002). 20대 남성체형연구 -측면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6(2), 270-279.
- 17) 송화경 (2004). 3차원 전신스캐너를 이용한 여성복 업체의 인대와 피팅모델 형태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어숙경 (1991). 인대의 치수와 형태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유경진 (2001). 남성정장 상의 원형설계 및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황은경 (2000). 20대 남성체형특성에 따른 상의원형개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小池千枝子, 이효진역 (2000). 입체재단. 예학사.
- 22) 川上梅외1인 (1998). 成人男子의 上半身の 體型特性(第1報).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39(10), 382-391.
- 23) 岡田宣子외1인 (1993). 成人男子의 上半身の 體型特性(第1報) -人體計測値と平面展開圖による檢討-.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39(6), 382-391.
- 24) 百田裕子외 1인 (1998). 成人男子의 上半身の 體型特性(第2報) -計測項目とパターンとの關係-.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39(8), 517-526.
- 25) 長田美智子외 7인 (1997). 成人體型時系列分析(第1報) -成人男子-.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38(7), 378-384.
- 26) 三吉滿智子외 1인 (2002). 成人男子用衣料設計のための上半身原型作圖法の研究(第1報) -上半身 外

- 包囲密着平均原型作圖法-.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43(9), 593-603.
- 27) 三吉滿智子외 1인 (2003). 成人男子用衣料設計のための上半身原型作圖法の研究(第2報) -平均原型から汎用原型にする肩傾斜の検討-.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44(12), 780-538.
- 28) 藤井秀雪 (1998). ファッションとともに進化するマネキン.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39(3), 148-158.
- 29) 三宅五穂 (2001). マネキンの歴史とV.MDについて. 日本 纖維製品消費科學誌, 42(4), 218-223.

(2004년 8월 26일 접수, 2004년 10월 1일 채택)